

DPI, 맞춤형 컬러 페인트로 승부?

다양한 고객 선호도에 부응 ... 리모델링 및 실내 인테리어 수요 기대

노루표 페인트 브랜드의 DPI(대표 한영재)가 맞춤형 컬러 페인트를 새로 내놓았다.

DPI는 페인트 색상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컬러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<애니칼라 시스템(AnyColor System)>을 도입했다.

새로 선보인 맞춤형 컬러 페인트는 고객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와 자동조색시스템을 활용해 즉석에서 필요한 규모만큼의 페인트를 3분 안에 조색해 제공한다.

신속한 조색과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아파트 및 주택의 리모델링 현장과 실내 인테리어 제작기업 등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.

DPI는 현재 전국 100개 특약점에 자동조색 시스템을 설치했으며, 페인트 특약점에 비치된 약 3000가지의 컬러가 담긴 컬러북에서 색깔을 선정한 뒤 용도를 제시하면 필요한 페인트를 제공해준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7/04>